

제12장 자살시도자, 이렇게 바뀌었다 1

교육을 수강한 S양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먼저 마지막 시간에 제출한 '자살과 죽음 의식조사' 를 살펴보자

설문 1. 이전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자살시도를 한 일이 있는가.

2년 전쯤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몇 가지 일들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우울증에 대한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야단을 맞은 것이 있다. 그때 춘천으로 돌아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수업 중반까지만 해도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었지만,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마치는 지금은 생겼다. 전과 같은 충동이 생겼을 때 수업을 통해 봤던 동영상이나 교수님의 말씀이 스쳐지나 갈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충동을 억제할 힘이 생겼다고 본다.

설문 2. 사람들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마치 자살이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라도 하는 듯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자살한다고 해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오직 현실에만 해결할 수 있다. 자살은 단지 회피하려는 것뿐이다.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설문 3. 죽으면 모든게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

설문 4. 자기 판단에 따라 자살해도 되는가.

전에는 죽음과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들은 후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다. 자살은 이기적인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남기는 건 안되는 일이다.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인터넷과 출석 수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했는데, S양은 처음 3일 수업을 결석했지만, 사이버 수업은 수강했다. 개강한지 며칠 지나 메일을 보내왔다. "급작스런 일이 있었기에 이제야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삼척입니다. 방학이라 그곳에 있다 보니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결석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는 절대 결석하는 일 없이 성실히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계절학기 수업을 시작하기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했더니 야단만 맞고 춘천에 와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겁이 나서

수면제를 뺀고 영영 울고 있는데, 우울증이 있었던 어머니도 S양의 거짓말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마지막 시간에 수업을 수강한 소감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음같은 글을 제출했다.

고민과 반성의 시간들을 지나며

나에게 지난 3년은 마치 인생의 블랙홀에 빠져있는 듯한 시간이었다. 처음엔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부터든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다. 지역언론사 기자가 되겠다는 꿈은 귀찮아졌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짐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세상과 세상이 아닌 곳 중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됐다. 딱히 결정적인 이유를 꼽을 수도 없었다. 친구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라고 수차례 물을 때마다 그렇게 곤욕스러울 수가 없었다. 특히나 교수님의 소개로 심리상담을 받을 땐 정말이지 숨이 막힐 정도의 부담감을 느꼈다. 원래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성격도 못되는 데다 상담 후 꼭 변화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강박관념 때문이었다.

처음엔 단지 조금 우울한 기분일 뿐이었다. 스스로 잘 준비해왔다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어긋난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토익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나는 실전에서 경험을 쌓으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당시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최악의 상황으로 헤어지게 됐다. 그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절실했다. 그나마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어머니라 여겨 “요즘 나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라고 넌지시 말을 꺼냈다. 내가 어머니께 얘기를 털어놓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같은 정신적 고통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다.

어머니에게 나는 미래이고 탈출구였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하루빨리 내가 취직을 해 아버지와 따로 사는 것이다. 가끔 안부전화를 할 때마다 죽지 못해 산다느니, 네가 곧 대학에 입학하는 동생을 챙겨주라느니 하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흐느끼신다. 그러니 나의 우울증 고백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던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너 대학시킬려고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네가 나보다 더 힘들다는 거야?”라며 소리를 질러 대는 어머니의 뜻하지 않은 반응에 나는 마음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집안의 장녀로서 느껴왔던 부담감이 10배 아니 100배로 불려진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늪으로 빠진 지름길이었다. 아침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눈을 뜨면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당연히 학교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고 졸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황은 또 절망감에 빠지게 했고, 술로 얼룩진 일상은 계속되었다. 주위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고 그렇게 지내다보니 자연히 부모님과 친

구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졸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받아 학기등록을 했다.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은 조금도 없지만 웬지 학기등록을 안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난 3년간의 내 생활은 거짓말과 알콜중독과 무기력한 모습밖에 없었다.

이렇게 내 지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한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되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기억을 하는 건 나를 자책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절 학기를 등록한 것도 단지 불안함 때문이었다. 분명 학교를 다지니 않을 것을 뻔히 알지만 다시 등록한 것이다. 정규학기까지 합쳐 벌써 5번째 재등록이었다. 이번에도 돈만 버리는 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언제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기억도 안날정도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을 끝내는 감회가 남다르다. 비단 학교에 꼬박꼬박 나오게 됐다는 것만이 아니다.

수업을 정리하는 소감을 쓰면서 나는 슬프면서도 시원한 기분이다. 때마침 이 수업이 개강되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셨다. 이유는 나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나는 엄청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어머니께 은근히 우울증 얘기를 꺼냈다가 야단을 맞고 춘천으로 올라온 뒤 나는 자살을 시도했다. 술을 마시면서 충동적으로 그동안 조금씩 사뒀던 수면제를 먹었다. 당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순간 무서운 기분이 들어 모두 뱉고 토하며 영영 울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런데 전화로 어머니의 자살시도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교수님의 자살예방교육 수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다. 동생은 고3이었고,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시는데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었다. 우울증은 무엇보다 혼자두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춘천으로 올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어머니 상태가 나아져 수업에 참석하게 됐고, <마지막 선물>을 읽으면서 이 수업을 어떻게든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신 수업이 없는 날은 집에 다녀왔기 때문에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였다. 수업의 진행절차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특히 인터넷 수업의 게시판에는 거의 글을 올리지도 못했다. 대신 오프라인수업과 레포트로 읽어야 하는 책읽기에는 집중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내가 직접 수업과 관련된 상황,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처해있다는 점이었다.

아마 오프라인 수업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기차와 버스 안에서 보내면서 자살과 죽음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지난 대학생활의 위기를 다시 되돌아본 것도 그런 시간들 덕분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예전 일기장들을 꺼내보니 내용의 95%는 '죽고 싶다'는 말이었다. 충격적인 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기를 써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죽고 싶고 힘들 때마다 새 일기장에 그 기분을 적으면서 위안을 받아왔던 것이다.

죽음, 또 자살을 나는 언제나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왔다. 그런데 나로 인해 쇠약해진 어머니를 보며, 가족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보며 변화를 느꼈다. 아직도 나는 내가 죽은 후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머니의 자살기도 소식을 듣고 받았던 충격이 지금까지 내가 지녔던 죽음 이해, 삶의 인식을 바꾼 것은 틀림없다. 특히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민하게 만들고 질문을 던져준 교수님과 이 수업에 정말 감사한다.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공통점은 ‘행복’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죽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같다. 내 삶과 죽음이 분명 내 주위사람들의 삶과 죽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처음엔 이 둘을 함께 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했다. 웰빙이란 것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위한 욕심이 만들어낸 열풍일텐데 이것이 행복하게 죽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웰빙에 대한 고민과 집착이 심할수록 죽음을 두려워 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였다. 실제로 웰다잉을 맞은 사람들의 사례는 마치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다. 어떻게 죽음을 멋있는 자세로 혹은 온화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일까. 결국 나의 술한 의문점들은 웰다잉을 웰빙과 처음부터 별개로 여기고 고민했던 데서 온 오류들이다.

삶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 역시 철저할 수밖에 없다. 진정 웰빙이란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 즉 욕체를 넘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뤄낸 것이다. 웰빙을 할수록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 죽음의 순간 많은 세속적인 것들과의 이별에 담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고민을 아주 어릴 적부터 해왔다면 어땠을까? 웰다잉을 위한 많은 자료들은 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죽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생명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임신붐이 일었다는 기사를 읽고 굉장히 놀랐었다. 어린 여학생들이 함께 임신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자고 약속해 임신했다는 기사였다. 그중에는 아이의 아버지 될 사람이 20대 노숙자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기사에서는 작년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영화 <주노>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임신을 마치 소꿉장난처럼 여기는 미국의 현실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미 시사프로그램은 학교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포르노의 장면을 연습해본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박한 적도 있다. 이런 생명경시풍조가 결국 자신에게 대입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삶, 죽음, 자신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내가 웰빙과 웰다잉을 연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들과 자료를 읽으면서 삶과 죽음을 넘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원해왔던 행복이 혹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생긴 기준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것들 말이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는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기말시험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죽음과 자살에 대한 의식변화" 문제에 다음같은 답을 적었다.

교육을 받았던 많은 수강생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삶과 죽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나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치게 됐다. 처음 내가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란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이와 관련한 체험자들의 사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각을 넓혀 죽음의 문제를 삶을 통해 바라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삶과 죽음에 관한 고민 중 영혼에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최면치료를 통한 전생이나 빙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유연해 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살에 대한 변화이다. 이전에는 죽음을 혹은 자살을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주위의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립됐다고 느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전의 나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마도 이 수업이 가장 크게 나를 변화시킨 건 삶을 살아가는 방식, 행복이라고 여기던 기준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제출한 레포트

친구가 일깨워준 자살이라는 비인간적인 선택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수업을 접하기 전까지,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 나에게 있어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이라고만 생각 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만 8차례 이상이나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살은 해서도 안되고, 생각조차 해도 안되는 비인간적인 선택이라는 의미로 굳혀져 버렸다. 오진탁 교수님의 강의'인간의 삶과 죽음', 교수님의 저서 「자살, 세

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11월6일 새벽, 한밤중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었다. 나는 ‘알람이 잘못울렷나’ 라고 생각하며 잠결에 핸드폰을 그냥 꺼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다음날 11월 7일 연락이 뜸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다. ‘웬일로 전화를 다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전화를 받고 나의 표정은 한순간 굳어져 버렸다. 친구가 11월 6일 새벽 15층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다는 소식 이었다. 불과 1주전에 단둘이 만나 술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잡아놨었는데... 멍한 상황에서 자취방으로 내려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집인 원주로 향했다.

원주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친구와 있었던 지난날의 추억과, 일주일 전에 만나 가졌던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와,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스쳐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득 11월6일 새벽에 알람이 울렸던 그 상황이 떠올라 통화목록을 조회해 보았다. 친구의 전화였다.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친구의 시신이 안치 되어있는 장례식장에 들어가 밝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과, 망연자실하게 앉아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정이 폭발쳐 울랐다. 조심히 영정으로 다가가 발을 딛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친구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슬퍼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런 친구의 부모님은 나를 끌어안으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그 순간부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20~30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구석자리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며, 자살 경위를 듣게 되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한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사회와 학교에 대한 부적응, 3년간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의 변심, 그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이틀을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었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나온 그날 밤. 그는 집에서 불과 300미터 정도 떨어진 15층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미안하다는 말, 자신처럼 살지 말라는 말,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께 드리는 유서 한통을 남긴 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불과 일주일 전 만났던 그 당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에서 그 이틀 전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했으니 마음을 돌릴 때 까지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군대에서 전역 후 두달이 지났는데도 전공수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지만, 1년 반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 보아야겠다며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했었다. 1병 2병 빈 술병이 늘어가면서 이런 이

야기는 더욱 진지해 졌고, 어느 순간 그는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짓더니 ‘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고민 같은 건 안했을 텐데... 그렇지 않냐?’ 라는 자포자기식의 말을 내뱉었다. 진지한 이야기 속에서 그의 그런 자포자기식의 말은 그때 당시 의아스러웠지만, 농담으로 넘기고는 그렇게 한 시간을 더 이야기 하고는 헤어졌었다.

그렇게 헤어진 지 이틀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이튿날 그는 세상과의 이별을 선택했던 것이다. 발인을 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그 친구의 옆을 지키던 중에 하루에 한두 번씩은 경찰이 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였고, 경찰이 올 때마다 부모님은 낮이 나간 듯한 표정만으로 침묵을 일관하시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다. 그 후에는 눈물까지 말라 우는 게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틀 후 발인을 하였고, 원주 외곽에 위치한 화장장으로 이동하였다. 화로 속에 들어가는 친구의 시신을 보면서, 삼베로 온몸을 감쌌다고는 하지만, 머리 부분이 폭 패여 피가 멍목에 스며든 친구의 시신을 보자 다시 한 번 눈물이 흘렀고, 부모님은 혼절하셨다.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나온 그 친구의 유골을 본 순간 너무 슬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24년간의 삶을 마감하였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남긴 것은 크나큰 슬픔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이었다. 나는 친구의 자살로 인해 책에서 언급한 생사학의 관점에서 자살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고, 완전히 공감하게 되었다. 남겨진 가족들과 친지들은 그의 자살로 인해 커다란 슬픔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머니는 현재 정신쇠약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시라고 하며, 아버지 역시 사업체를 돌보느라,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느라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회사와 병원을 전전하신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을 위로해 드리고 힘이 되어줄 다른 자식 또한 없다. 친구가 외아들인 까닭이다. 이로 인해 한가정의 행복은 송두리째 날아갔다.

하늘에서 이러한 부모님을 보고 있는 친구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자살은 더 큰 고통을 부르는 것 이며, 자살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3년간 사귀어온 여자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더욱이 여자 친구의 가족들도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헤어짐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사귀는 과정을 보아도 남자가 여자에게 모든 정을 주는, 친구의 일방적인 사랑 이었다. 고인이 된 친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3년간을 사귀어 온 것이 신기할 뿐이었다.

또 전공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재수는 힘들다고 해도,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해서 적성에 맞는 과로 전과 하거나, 편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자살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보았을 때 자살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심한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고, 적

성에 맞지 않는 전공과목이 자살로 인해 적성에 맞아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수만가지 상황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자살로써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자살은 끝이 아닌 것이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살의 자기 결정권, 자살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 아메리(Jean Am'ery)의 자살옹호론을 자살의 자기합리화의 근거라고 주장 할 것이다. 장 아메리의 주장대로 인간에게 자살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이든 살인이든 다만 대상이 다를 뿐, 생명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두 권리가 인정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사회'는 성립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인간이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자살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살할 수 있는 '권리'란 없는 것이다. 친구가 생전에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나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강의를 접했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비인간적인 죽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으로 인식하게 되어 씩씩하지만, 자살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게 되었고, 자살만을 생각하면 그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서 '각양각색'의 동기로 벌어지고 있다. 이 자살의 공통점은 올바른 죽음관이 부재함으로써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는가”, “자살을 하면 현재의 고통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다.”, “이 세상과 사회가 나를 자살하게 만든다.”, “자살하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다.” 라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오해가 있다고 한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사회적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해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 존재인 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선물인지도 모른다. 또한 사회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사회가 대신 자신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으며 자기 죽음을 죽여줄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죽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분명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을 알면 왜 자살할 수 없는지', '자살해서는 안되는 이유'등을 다양한 연령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하는 교육에 있다.